

01 교회소식

사랑의 힘으로 맺힌 열매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목자님의 생명 다한 사랑과 성도들의 순종이 축복의 열매로 맺히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라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아무리 내게 해를 주는 상대라도 용서하며 모든 이에게 감동과 사랑을 전해야 한다.

03 기획특집

지구의 태초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섬세한 사랑으로 지으신 원시 지구의 모습을 통해 그 깊은 사랑을 느껴본다.

04 간증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일까요?”

주님 마음 닮아가니 행복하다는 주진돈 집사와 페루에서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축복받고 있는 양할리가 깜뽀스 성도.

만민뉴스

제627호 2014년 3월 3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만민의 이름으로 펼쳐질 끝없는 영광

하루하루의 날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쌓여 왔으므로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큼이며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축복이 쌓여 있음이니이다.

지금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제단에 주실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지내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키셨고
이제 변화시킬 이 많은 영혼들에게 미치리니
아버지의 권능은 한이 없으시리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만민에게 보이심이며 영혼들에게 보이심이니 기대하나이다.
사랑하는 만민의 이름으로 펼쳐질 끝없는 영광을...

베스트셀러 이재록 목사 신간 『고백』 책자 중/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산상기도 중에 앞으로 펼쳐질 끝없는 축복과 영광을 기대하며 올린 고백

지난 3월 23일 주일 저녁예배 시 2013년도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 발전에 이바지한 주의 종과 일꾼들에게 사무연회 시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하며 다음 해 연초에는 뚜렷한 공적이 있는 성도에게 우수상을 수여한다.

영접위원회에서 17년간 새교우와 해외 손님을 섬김으로 우수상을 받은 류명순 권사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결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면 어떻게 섬기셨을까’를 생각하며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신속히 주님의 마음을 이뤄 늘 선하고 아름다운 향으로 귀한 사명을 충성 되게 감당하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처럼 만민의 성도들은 지난 1년간 실로 비약적인 영적 성장을 이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의 마음을 이룬 주의 종과 성도들만 해도 200여 명에 이른다.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인 믿음을 지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놀라운 축복인 동시에 교회적으로는 풍부한 영적 자산을 확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모든 것은 2013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레위족(교회 직원)들에게 허락하신 3개월의 유예기간과 목자의 중보기도를 통한 회개의 열매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 해 부활절을 맞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교회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을 위해 확고한 믿음과 끊임 없는 희생으로 1만여 자협력교회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왔다. 그럼에도 전 세계 만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수한 영적 장수를 위해 기도해 왔다.

그 결과, 2010년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점으로 성도들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을 목도하며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만질 수 없는 영의 사람을 사모하게 됐고,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온 영(살전 5:23)의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 만민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목자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13 우수상 시상식 2013년 기관 부문별 우수상 수상자는 전체 교구에서 지역장, 조장, 구역장 12명, 선교회에서 조장 1명, 기관장 3명, 주일학교 교사 1명과 부장 1명, 위원회와 봉사대 등에서 9명, 교회직원 8명, 봉사자 2명 총 37명이다.

우수상 수상자 인터뷰

“세계를 이루는 만민의 레위족으로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GCN 방송 서동원 집사

오늘의 제가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과 눈물로 만들어 주신 2010년 12월 25일과 2013년 3월 31일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마음 중심에서 고백드립니다.



당회장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주신 2013년, 주의 종과 교회 직원 3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제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원 은사집회와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니 첫사랑을 되찾았습니다. 퇴행성 허리디스크 치료와 물질 축복도 받을 수 있었지요.

또한 이희진 목사님께서 GCN 방송 총괄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제게는 영육 간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목표가 확고해졌고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루는 만민의 레위족(교회 직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비전이 뚜렷해졌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원장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비롯해 늘 곁에서 힘을 주시는 영적 가족 GCN 방송 사장 이정호 장로님 이하 모든 직원들, 특히 만민매거진 제작팀원들께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21~22)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라도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내게 잘 못한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8~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 줄 수 있는 조그마한 근거라도 찾고자 사자(使者)들을 보내어 살피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 보고자 여러 차례 간청을 하지요. 의인 오십인에서부터 시작해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하지요.

예레미야 18장 7~8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했습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히 죄악에 물들어 돌이킬 수 없는 악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 달랐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해 심판의 경지에 이른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요나가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하자 왕을 비롯해 온

백성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요.

또한 에스겔 33장 14~15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역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했습니다.

비록 악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해 온전히 돌이키면 동이 서에서만 것같이 그 죄과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3.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며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박았을지라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사랑의 중보기도를 올리셨습니다(눅 23:34).

여기서 ‘저희’란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박으며 희롱하던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할 온 인류를 지칭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과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 범죄한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사랑의 간구를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아무 죄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행 7:60). 그런데 오늘날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면 원수 마귀 사단은 악한 자들을 사주해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나를

핍박하고 애매히 고난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스테반 집사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는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6절에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27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지요. 내게 선을 베풀고 잘해 주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중보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공의대로만 판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에 아무리 내게 해를 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면 악한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싫다.” 하지 않으며 싫은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도 없고 원수는 더더욱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여쭙었지요. 베드로는 상대의 잘못을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크게 자비를 베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답변하셨지요. 이는 일흔 번씩 일곱 번,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7은 완전 수로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 즉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490번만 용서해 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로 오시는 길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11:00 PM 11:00 PM 7:00 PM
주일 저녁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공요철차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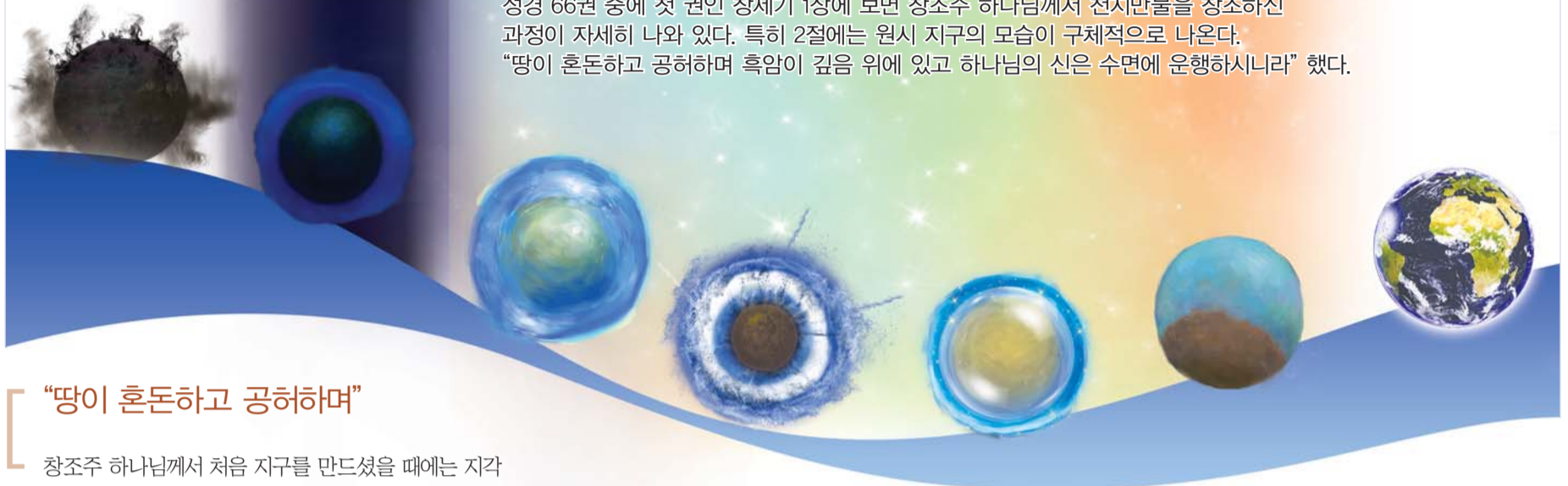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원시 지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지구 표면의 3분의 2는 바다로 덮여 있으며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 지구에만 바다가 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원시 지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 66권 중에 첫 권인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특히 2절에는 원시 지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는 지각과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지각 변동과 화산 폭발 같은 지질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대기 중에서도 갖가지 복잡한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과학자들도 지구의 초기 상태에 대해 지층에서는 활발한 지각 활동이 있었고 대기 중에서도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것을 대폭발로 생겨난 지구가 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대폭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는 과정이 그러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될 지구를 만드실 때 오랜 세월 동안 활발한 지각 활동과 대기 중의 여러 반응들을 통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거

치셨다(욥 38:4 ; 히 1:10).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적합한 대지와 공기를 만드신 것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완벽한 지구로 만들지 않고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거치셨을까?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먼저 땅의 기초를 다지고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육의 세계의 질서를 좇아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거치신 것은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갈 집을 짓는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수고가 따르더라도 정성을 다해 짓고자 할 것이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세세히 살피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설계하고 건축할 것이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오랜 세월을 걸쳐 지구를 만드셨다.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레 땅의 기초를 다지고 하늘을 조성하시며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될 지구를 두루 운행하시며 6일 창조를 통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어떻게 조성할지를 살피셨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지구의 기초를 다지신 후에 지구를 물로 덮으신 것이다.

당시 지구를 완전히 덮었던 물은 어떤 물일까? 창조주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였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했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다. 즉 땅이 물속에 있다가 이후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아를 감싸는 양수처럼 하나님께서 원시 지구를 생명수로 덮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장차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지구에 하나님 보좌의 생명수를 유입시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 당시 온통 생명수로 덮인 지구의 모습은 마치 태생을 기다리는 태아가 어머니 몸의 양수 속에 있는 것과 같았다. 양수가 태아를 감싸고 있음으로 인해 태아의 체온 조절을 돕기도 하고 외부 충격이나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 태아는 잉태된 후 양수 속에 있으면서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때가 차면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지구 역시 생명수로 덮여 있는 기간 동안에 무수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로 지구를 덮이시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바라신 것이다.

또한 생명수는 매우 맑고 깨끗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인간 경작을 통해 이 생명수와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하셨다. 어떠한 흠도 점도 없는 마음, 생명수처럼 맑

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나오길 바란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어 깨끗하게 한다. 영적인 물인 하나님 말씀도 주 안에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더럽고 추한 죄악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통 생명수로 덮여 있던 원시 지구를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지구로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천지창조 둘째 날에는 원시 지구를 덮고 있던 물 가운데에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창 1:6-8). 그 당시 지구는 높이 솟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도 없이 전체가 평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셋째 날에 북극에 큰 웅덩이를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그곳에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물은 ‘땅’이라 칭하셨다(창 1:9-10).

천지창조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시고 지각 변동을 통해 하나로 붙어 있던 땅은 여러 대륙으로, 한곳에 모여 있던 바다는 여러 바다로 나누기 시작했다(창 1:14-19). 이후 오랜 세월이 걸쳐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4 April

2014.3.30~4.5

이대륙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을 만나려면 1-2
- 위로부터 난 지혜 3-7
- 십자가의 도 21-24
- 공간과 차원 1-5
- 창세기 강해 86-90
- 천국 32-36 • 심계명 7-10
- 우리 삶의 등불 9

GCN TV 설교

- 나에게 속지 말자 1-2 (아수전 목사)
- 영의 세계 13/ 말씀, 기도 (이희선 목사)
- 생명수 5/ 믿음의 분량 3(신동호 목사)
- 사랑과 오해(정구영 목사)
- 게으름(김수정 목사)
- 육체의 결여(김승신 전도사)
- 믿음의 경주(조소영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일곱달콩 어여쁜 울동 19
- 찬양드려요 19-2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7-20
- 향기 18 • English 7-10
- 플로리스트 1-2
- 찬양과 경배(3) 101-105
- GCN 금요찬양 스페셜

신규 프로그램

- NEW 즐거운 요리 1
- NEW 옛날 옛적에 1
- NEW 만민자킴이 1
- NEW 모두 드려요 1

GCN 방송, 봄 개편!!

봄 개편을 맞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GCN 방송

1577-2073

작년 가을에 딸 보은이가 학교에서 보내준 프린트 물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과 '자녀가 부모님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내용이었지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은 크게 네 가지로 무시하는 말, 상대와 비교하는 말, 성격에 관한 말, 잔소리였습니다. 거기에는 "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성적이 이게 뭐냐?", "그렇게 할 거면 그만 뒤라", "방 청소 좀 해라" 등 총 25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딸이 대화 중에 "난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한 가지도 없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믿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모를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는 친히 본을 보여 주시며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2000년 10월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한 이후 저는 예능위원회 소속 브니엘중창단에서, 아내는 진주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에는 제가 세상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요. 레위족(교회 직원)으로 해외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명의 말씀과 기사와 표적, 권능을 나타내는 당회장님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에 맞는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성결돼야 한다는 당회장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지요.

그 후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설교 말씀을 명심해서 순종해 나가길 힘썼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대표 설교 '사랑장',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 '선' 등을 반복해서 듣고, 집중해서 책자를 읽으며 메모했지요.

뿐만 아니라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 전에 메모했던 주요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할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시간을 늘리고 금식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의 선전들을 본받아 영적인 믿음과 선의 마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믿음 성장은 내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니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족과 함께한 주진돈 집사 (1대대 3교구, 41세)

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악을 벗고 사랑과 선을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지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임했습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 외에 가정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봉사할 때에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또한 하루하루 내 심장이 뛰고 호흡할 수 있음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떠올려 볼 수 있음에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2013년 이른 봄, 겨우내 앙상했던 나무 줄기마다 표면에 수분을 한껏 머금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 목자의 사랑이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앙상한 가지나 다름없던 저를

위해 주님과 성령님을 보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잘 자랄 수 있도록 진액을 공급해 주신 것을 떠올려 주시면서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존심, 의와 틀, 교양과 지식 속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불편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선과 사랑을 닮고자 더욱 힘썼지요.

마침내 2013년 5월, 영의 마음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조장연합회 총무 사명을 맡은 아내 도미영 집사도 2013년 12월 말, 영의 마음을 이뤄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만민의 사역을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좋은 직장 and 요실금 치료의 축복을 받았어요”



2012년, 엔라씨 방송(중남미 최대 기독교방송사) 시청 중 이재록 목사님의 '천국' 설교를 듣고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 신앙생활은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임을 깊이 깨우치며 크리스천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재록 목사님께서 세우신 페루만민교회에 출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세로 데빠스고 지역에서 수도 리마에 있는 페루만민교회(담임 이재호 목사)까지는 버스로 왕복 1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당시 재정 상태나 직장 관계로는 교회

출석이 어려웠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른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월급이 6,900달러(약 300만 원)나 됐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토요일 저녁 버스로 주일 아침 페루만민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14년 동안 앓던 요실금까지 깨끗이 치료받았지요. 금년에는 여선교회 기관장이 되어 회원들을 섬기니 더욱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양할리가 감뱁스 성도 (페루만민교회)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1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1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1/3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번지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10호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8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말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선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선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선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선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선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선 서울시 강동구 방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선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선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